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남부권 메가시티 건설 촉구

광주시장·전남지사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보고회' 발표 내용

남해안 '해양·환경 수도' 조성

광주시-인근 5개 시·군 연계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제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14일 광주·전남 단일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 등 3가지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자치부' 신설, 신해양환경수도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산업, 광주와 인접 시·군 연계 등을 주제로 사업을 구상하고, 대구, 부·울·경 등 타 시·도와 연계 사업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전남 광역경제권 구축 적극 나서야=이용섭 광주시장이 이날 제안한 광주·전남 대표 협력 사업은 광주·전남 글로벌 에너지 허브 등 3가지다. 광주·전남 협력 글로벌 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은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와 인근 광주·전남산업단지 4곳을 중심으로 구축중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핵심이다. 광주·전남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이후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 501개 기

업, 2조1596억원을 유치했고, 직·간접 일자리 1만 1158개를 창출했다.

앞으로 광주는 주력산업인 인공지능 기반 그린뉴딜, 전남은 해상풍력과 광주·전남·북의 호남권 RE300을 연계해 정부의 '2050탄소중립' 목표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맡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하고 대형 국책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두번째 제안 사업인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는 광주시와 공동 생활권인 인근 5개 시·군을 인공지능 기반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로 조성해 상생과 동반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미 2015년부터 빛고를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SOC사업, 관광인프라 연계구축, 지역 협안사업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시는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의료기반 확충, 문화관광레저사업을 공동 추진해 청년이 살고 싶은 꿈의 도시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번째로 제안한 광주·대구 간 달빛동맹 완성과 전남·부울경을 연계하는 남해안 신성장 권역을 구축은 초광역 협력 추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

시는 최근 영호남의 20년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것과 관련해 광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초광역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대구간 공동 발전을 위한 조기 착공 및 2030년 내 개통, 2038아시안 게임 공동 개최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와 신해양환경수도 조

성해야"=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광주·전남 광역경제권 구축,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와 신해양·환경 수

도 조성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남도는 우선 영광·목포·여수·남해·거제·부산·울산을 잇는 해양관광도로, 수려한 섬을 연결하는 섬크루즈 등 자연·문화자원을 융합하는 남해안남부권 광역관광벨트를 시작으로 남해안 광역경제권을 적극 육성해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균형위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거나 균형위와 행안부를 통합해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자치부'를 신설하는 등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제수도, 행정수도에 이은 대한민국 제3의 수도로 '신해양·환경수도'를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여수·남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조성해 해양·환경 분야 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단순히 지방에 예산 조금 더 주는 중앙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과의 상생·공존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중앙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초광역 협력사업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투입된 18조원에 버금가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감 출석 자청한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승부수

민주당 방어전략 수립 등 뒷받침

원팀 선대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본선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당면 과제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 국정감사와 원팀 선대위 구성이다.

이 후보가 출석을 자청한 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은 대장동 정국 돌파 여부를 판가름할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도 성공적인 방어에 성공한다면 이 후보 자신에게 쏠렸던 의혹을 상당 부분 털어내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반면 답변이 미흡하거나 말실수를 하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 공세에 기름을 붓는 것은 물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불안한 후보론'이 당내에서 다시 표면화될 위험이 있다. 당장 국민의 힘은 행안위와 국토위 위원 사보임을 통해 저격수를 집중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이 후보 역시 주말 내내 국감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다 비우고 국감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캠핑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 의원들도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

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 이상의 국감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며 "국감을 마치고 지사직 사퇴 문제 등 급박한 것들을 정리해야 민생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뒷받침에 나섰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의 한정에 환경부 장관 자리를 다른 의원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사보임을 하고, 각 위원회 간사 중심으로 팀플레이를 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의 '방어팀'에 긴급 수혈될 인사로는 이 후보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선 선거운동을 이끌 선대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됐다. 이 후보 측에서는 조정식·박홍근·김영진 의원이, 당에서는 윤관석·고용진·송갑석 의원이 각각 참여하는 준비단이 가동돼 상의에 들어갔다. 준비단은 이르면 15일째 첫 대면 회의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는 통합, 개방·포용, 미래 등을 주요 콘셉트로 당 안팎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적으로는 원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당 밖에서도 다양한 인사들을 끌어들이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가운데 당내에서 '어른'이라 불

릴 만한 상징성이 높은 인사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당과 이 후보 측은 순회경선에 참가했던 이낙연·추미애·박용진·정세균·김두관 후보 등도 모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경선이 끝난 뒤에도 득표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참여다. 지지층 사이에 감정의 앙금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이 전 대표의 합류 의사를 타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은 기존 캠프에서는 최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외부 단체나 학계 등에서 중랑감 있는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방안도 당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이날 퇴임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는 오는 15일에는 민주당 의총에도 참석해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조만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경기도 국감이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순리적 절차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34.0%·윤석열 33.7%...오차범위 접전

리얼미터 '대선 4자대결' 조사

4개기관 대선 적합도 조사선

이재명 39%·윤석열 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의 가장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2027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 윤 전 총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4자 가장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34.0%, 윤 전 총장은 33.7%를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0.3%포인트로 오차범위(±2.2%) 내였다.

심 후보와 안 대표는 각각 4.2%, 4.0%의 지지율을 보였다.

윤 전 총장 대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가상 4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홍 의원을 5.2%포인트로 앞섰다. 이 후보와 홍 의원의 지지율은 각각 32.4%, 27.2%로 집계됐다. 안 대표는 5.1%, 심 후보는 5.0%였다.

보수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30.3%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

(25.5%)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12.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내 경선 종료 이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다소 하락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 후보 선출 후인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 대결 결과, 이 후보는 39%로, 국민의힘 윤 전 총장(35%)을 4%포인트 앞섰다. 후보 확정 전인 지난 4~6일 같은 조사 대비 이 후보는 5%포인트 떨어졌으나 윤 전 총장은 2%포인트 오르며 격차가 줄었다. 당시 이 후보는 44%, 윤 전 총장은 33%의 지지율로 격차는 11%포인트였다. 이 후보와 국민의 힘 홍준표 의원의 가상 대결 조사 결과는 각각 37%, 40%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홍 후보는 3%포인트 상승했으나 이 후보는 3%포인트 하락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이 뒤바뀌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 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 2022. 1. 10(월)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 신 대 학 교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자소 36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